

# 소통을 위한 성찰:

체계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본 성찰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

김무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연구에서 일반모델에 대한 섬세한 구상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이론연구의 유형들 가운데 체계이론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해 고찰하고, 이 모델에서 특히 중요한 성찰성 개념을 부각시켜보고자 한다. 의미전달과 상호이해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주제, 전달, 대화의 패러독스로 정리하였다. 체계이론의 성찰성 개념은 이러한 패러독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패러독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울러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 언어화용론을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 방식에도 역시 논리적인 난점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루만의 모델은 하버마스의 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메르텐으로부터 시작되어 루만, 슈미트 그리고 그랜트 에 의해 제시되는 체계이론과 구성주의적 이론은 다른 방식으로 패러독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식을 성찰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성론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체계이론과 구성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각각의 경우에 약간의 상이한 점도 나타나지만, 성찰성 개념에 치중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커뮤니케이션, 체계이론, 구성주의, 성찰성, 인지적 자율성, 허구, 다공성

## 1. 서론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생각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각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의 수행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즉 성찰을 말한다. 그런데 각기 다른 두 가지 행위,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행위와 성찰의 의식적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의식이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하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론적 고찰의 결과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은 성찰이라는 의식적인 행위가 커뮤니케이션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의미전달과 수용, 합리성, 상호작용, 대화, 상호주관성 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자 목적으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제의 부분을 형성하는 개념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실제로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개인적인 차원의 성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해가 이러한 개념들의 모호함을 보완해준다. 커뮤니케이션을 의미전달이나 상호이해로 파악하는 모델은,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2-A00193).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mooq@pknu.ac.kr)

그 문제점은 성찰의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의 수행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성찰이라는 의식적 메커니즘을 감안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이나 합의의 실용적 필요성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혹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특정한 맥락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델의 논리체계를 건너뛰는 경우이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협소한 사례들로 간주하고, 그 이외에 다른 사례들을 생략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였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과연 필요한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즉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논리체계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세부적인 부분들도 치밀하게 고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세부적 고찰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어떠한 맥락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예를 들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맥락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성찰성의 개념화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려고 한다.

## 2. 연구의 관점과 구성

다음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메르텐(Merten)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본 연구의 관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메르텐은 1976년에 이미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은 아직도 협소한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역동적인 개념에 비해서 아직 정적이고 유형론적인 도식이 지배적인 현실이 중대한 원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은 여러 대상들을 단순화하여 인식적 현상들의 특성을 밝혀내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은폐시킨다”고 하였다(Merten, 1976, p. 170). 메르텐이 개념들을 역동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말한 지도 벌써 35년이 지났지만, 사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모델의 체계성을 위한 개념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한 세기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가 새로운 현상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모델에 대한 숙고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우선 메르텐이 도식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현상들의 고찰에 매우 환원적이고 추상적인 관념들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을 전달자와 수용자,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채널이나 미디어로 단순하게 파악한다든가, 또는 확정된 의미가 어떠한 맥락에서 정보화되어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구조화시키는 경우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메르텐은 이와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들 보다 ‘성찰성’(Reflexivität)이라는 개념에 대한 숙고가 더욱 중요하며 그것으로 단순한 구조적 시각을 극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메르텐이 당시에 이론연구의 틀을 잡기 위해서 제시한 성찰성 개념은 독일의 많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의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듯하다. 생물학적 체계이론을 사회학에 가져오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가져온 루만(Luhmann)이나, 또한 급진적 구성주의(radikaler

Konstruktivismus)이라고 일컬어지는 슈미트(Schmidt)의 인지적 자율성(kognitive Autonomie)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리고 다공성 커뮤니케이션(porous communication) 이론을 제안하는 그랜트(Grant)에게서 모두 성찰성 개념은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론의 발전적 전개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 단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의식이나 인식의 자율적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체계이론과 급진적 구성주의가 이론적인 깊이를 더해가면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설명은 사회와 인지에 대한 이론모델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체계이론을 정리한 루만의 저서, 『사회적 체계들』이나 슈미트의 주저인 『인지적 자율성과 사회적 지향』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체계이론과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사회적인 행위와 의식적 행위에 종속되는 것, 혹은 그것들을 위한 도구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성찰성 개념 또한 큰 역할을 한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부터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서 본 논문은 메르텐의 성찰성 요청으로 시작하여 그것이 체계이론과 구성주의적 커뮤니케이션론으로 전개되는 논의의 흐름, 즉 주로 독일의 커뮤니케이션학 담론의 흐름을 연구의 관점으로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방법론에 있어서 다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성찰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분석이나 현상의 설명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에 머무르려고 한다(Pörksen, 2001; Schmidt, 2004; 최경진, 2001; 오창우, 2003, 2004).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체계이론에서 중요시되는 성찰성 개념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은 무엇인가를 대상화하여 그것을 경험적이거나 역사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수집되어 경험을 토대로 대상들의 규칙성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혹은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어떠하였는지 몰라도, 현재의 시대에는 특정한 모델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방식의 설명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생각해보면서 선형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고찰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것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물론 보편법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필요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유에서 산출되는 이론이 유용하다는 전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을 잡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과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방안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상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관찰에 앞서 이론적 모델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였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연구관점(체계이론적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논의대상(성찰성 개념과 커뮤니케이션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려고 한다. 첫째 연구자는 커뮤니케이션의 정보모델이나 합의모델을 비판하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약점을 지니고 있는지 서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다른 모델이 요청되는 계기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개념적 규정을 통하여 정보모델이나

합의모델이 지니는 약점을 보완해주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느 지점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주목하게 될 성찰성 개념에 도움을 받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단순히 소개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떠한 맥락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파악될 것이다.

**둘째로** 성찰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사실 성찰성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반성(reflection), 재귀성(reflexion), 자기지시성(self-reference), 자기성찰성(self-reflection)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접한 개념들과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성찰성 개념을 구분하기 위하여 ‘성찰적 근대화’론을 제시한 바 있는 벡(Beck)과 래쉬(Lash)의 논의 등을 참고해보도록 한다. 그리하여 이 문맥에서 다루어지는 성찰성 개념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모델이 지니는 난점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셋째로** 성찰성과 커뮤니케이션의 논리적인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성 개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론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의 합리성 모델이 성찰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들 간에 나타나는 입장 차이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체계이론의 진영에서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 합리성 이론을 비판할 때, 성찰성 개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버마스도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독스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이론적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론은 사회적 합의나 합리성, 그리고 정당성과 같은 공공성을 지향한 개념들로 무장된 유력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에 대해서 고찰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지향점에 맞게 하버마스와 루만의 입장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루만의 체계이론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되고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 두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즉 슈미트와 그랜트의 논지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성찰성 개념이 더욱 세밀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루만이 섬세하게 기술하지 못한 체계이론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일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 3. 정보모델과 대화모델의 패러독스

우리는 흔히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할 때,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는 정보, 미디어, 채널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라스웰(Lasswell, 1948)이나 섀넌과 위버(Shannon & Weaver, 1963)같은 고전적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의 영향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여 정보공학적인 모델이라고 칭하는데, 이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신호로서의 정보를 교환하는 입출력 기계의 작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단순한 모델은 물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그리고 수정보완은 연구자가 보기에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째로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를 고찰하는 경우, 즉 인간은 기계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순히 정보의 전달자와 그것을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수신자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한다. 그리고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에서 교환되거나 전달된다고 여겨지는 정보의 문제를 고찰하는 경우, 즉 정보나 언어의 의미는 단순히 코드나 신호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전달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한다. 그리고 셋째로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는 경우, 즉 커뮤니케이션은 누군가에 의해 정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양자 간에 서로 동일한 것이 이해됨으로써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한다.

이에 관한 많은 예들 가운데 웨슬리와 맥린(Westley & MacLean, 1957)의 설명을 언급할 수 있다. 그들은 정보의 교환을 수행하는 두 사람을 고정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의 설명은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주체에 대해 생각한 결과이며, 따라서 이 착안은 1) **첫 번째**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이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이 발생하고, 다음 단계에서 전달자와 수신자는 변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애초에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을 때의 전달자와 수신자와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최초의 커뮤니케이션 참여자가 A라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연후에 그는 A'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와 맥린의 보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일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발생 이후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효과로 말미암아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는 변화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자를 능동적인 주체로 간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수용자가 단순히 보도의 접수자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의 적극적인 의미산출자로 구상”될 수 있는데, 거기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으며 자극반응의 모델에 머물렀다고 여겨진다(Schmidt, 1996, pp. 69~70).

2) **두 번째**로 언어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다음이 중요하다. 대체로 언어학이나 기호학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단순한 언어나 기호의 이해만으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언어학은 의미론에서 벗어나서 화용론으로 전개되었고, 소쉬르의 단순기호학을 비판하면서 담론이론이나 해체주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처럼 의미구조 자체에 대해 깊이 회의하는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이론을 고려하는 일은 힘들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 언어화용론(linguistic pragmatics)은 고려해볼만 하다. 따라서 화용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어 보겠다.

커뮤니케이션의 성립은 언어에 달려오는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의도, 맥락, 파트너의 기대, 발화 및 문체 등과 같이 언어주변의 화용론적 맥락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기대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적절한 의미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수용미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기대지평(horizon of expectation)이라고 한다)이며 또한 파트너에게 전달된 비유적 언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함정을 피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경우에 따라 사전적으로 고정된 언어의 의미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맥에서 보자면, 언어 패러독스는 베이트슨의 이중구속(double-bind) 개념에서 잘 나타난다. 이중구속은 베이트슨(Bateson, 1972/2006)이 제안한 개념으로 원래는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고 정신분열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 의식되지도

못하고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중구속이다. 물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정신분열증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본디 이중적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메시지가 동시에 발생되며, 때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미들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수용자는 각 단계마다 서로 반대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메시지를 구별해내야 한다. 어떤 단계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고 혹은 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단계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인가? 그리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러한 구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중구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의미의 일차적 진술과 그것과는 모순되는 의미의 이차적 진술이 전달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사실 베이트슨은 이러한 상황이 일상적이라고 한다). 대체로 이차적 진술은 비언어적 수단에 의해 전달된다. 그것은 분명히 모순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진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용자는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다.<sup>1)</sup> 이러한 상태에서 이중구속의 희생자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경우, 언급된 세 가지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가면서 상호작용을 유지시킨다.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질문은 사실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며, 또한 그것을 풀어야 하지만, 전달자에 의해 제시된 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것의 메타차원에 위치하는 질문들이다. 커뮤니케이션 상황 자체를 인지하여 발생한 질문이기 때문이다.<sup>2)</sup>

3) **세 번째**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난점을 촉발시키는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실 커뮤니케이션으로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논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를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양자 간에 발생하는 의미교환이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였을 때 나타나는 패러독스를 우리는 ‘이중의 우연성’(double contingency)이라고 한다. 이중의 우연성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상대방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누구도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나타내주는 개념이며,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실현불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루만에 따르면, 인간은 본디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루만은 이를 “극단적인 사회종속성과 고도의 개별화(extremere Sozialabhängigkeit und hochgradiger Individualisierung)”이라고 표현한다(Luhmann, 1998, p.193). 그런데 그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단순히 “관계”(Beziehung)라는 전통적인 개념하에 은폐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생태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김성벽, 2004; 오창호, 2008), 구성주의, 체계이론 등은 개별성과 사회종속성의 충돌을 개념적으로 전제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오히려 깊이 파고든다. 그리고 루만은 충돌의 문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1) 서로 다른 의식과 기억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2)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참여할

1) 비슷한 문맥에서 정보공학적 커뮤니케이션론이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배제한다고 설명하는 크리펜도르프(Kriffendorf, 1989)의 문제제기도 참고할 수 있다.

2) 베이트슨이 말한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메스커뮤니케이션에서 이중적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관하여 바르트(Barthes, 1957/2002)의 저서 『현대의 신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는 메스커뮤니케이션에서 구사되는 언어, 기호, 코드들이 신화에 의존하면서 사실상 은밀하게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어려움 3) 이해와 전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보장될 수 없는 어려움의 세 가지 난점으로 구분하였다(Luhmann, 1984). 이러한 문제들은 들여다 볼 수 없는 두 개의 블랙박스가 서로 대면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중의 우연성의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 과제이며 나아가서 사회의 구성의 기본단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이에 대해 김성재는 행위이론적 관점, 언어행위이론적 관점, 그리고 체계이론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파슨스(Parsons)는 행위 이론에, 설(Scarle)과 미드(Mead)는 언어행위이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버마스는 두 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루만의 해결방법도 소개되고 있는데, 연구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들을 직시하는 체계이론이 보다 세밀한 이론구성을 시도하였다고 생각한다.

결국 ‘왜 커뮤니케이션은 불확실(unwahr-scheinlich)한가?’라는 문제는 간단히 패러독스 때문이라고 답변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정리해보았던 세 가지 사항 모두 패러독스를 유발시킨다. 즉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주체문제와 관련된 패러독스, 언어를 전달되어야 할 대상과 같은 도구로 이해하였을 때 발생하는 패러독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양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간주하였을 때 발생하는 패러독스를 말한다. 다음 장에서 성찰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 개념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독스 문제가 설명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에 이러한 관점에서 대화의 패러독스, 즉 이중의 우연성을 둘러싼 하버마스와 루만의 논의를 잠시 살펴보려고 한다.

#### 4. 자기의식으로서 성찰성

성찰은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아닌 바깥에 있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거나 표현한다. 그러나 간혹 그러한 행위가 우리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는 때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성찰과 관계된다. 예를 들어 철학자는 세상에 대해 고찰하지 않고 거꾸로 철학에 활용되는 문자에 대해 사유하기도 하며(Derrida, 1988), 혹은 영화감독이 사실을 재현하지 않고 영화 자체를 주제로 삼기도 한다(Stam, 1992/1998; Krichmann, 1997). 그리고 학자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한다. 이렇게 외부로 지향하기 보다 오히려 그 자체에 대해 머물러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한다. 성찰은 따라서 무엇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에 대한 사유 혹은 회의에 가깝다(Lawson, 1985).

커뮤니케이션론의 맥락에서 살펴보기에 앞서 성찰성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러한 설명으로 그 의미의 선이해와 더불어 성찰성 개념의 도입이 다른 학문분야의 이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찰적 근대화론을 제시한 벡(Beck)은 성찰(reflexion)과 반성(reflection)의 의미를 구분하여 성찰성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반성은 외부의 사물이 거울이나 혹은 스크린에 반영(혹은 영상)되는 것처럼 주체와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각하거나 의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성찰이란 지각이나 의식과 같은 우리 스스로의 작용을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찰이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해부, 해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성찰이 지각의 지각, 혹은 의식의 의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지각이나 의식을 위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작용이다. 벡은 근대화의 미래를 설명할 때 그것이 무한히 발전할 것으로 보지 않고 필연적으로 자기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와 대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대화의 재귀적인 성격을 성찰적 근대성(reflexive modernity)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 발전을 의미하는 단순근대성(simple modernity)과 대조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즉 벡에게 근대화란 무엇인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발전은 근대화 자체를 조정하고 감시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Beck & Giddens & Lash, 1994/1998; 이진복, 2006).<sup>3)</sup> 벡의 착안에서 성찰성이 지니는 의미를 반성과 대조하여 고려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라투르(Latour, 1988)는 학문적인 성찰성을 논하면서 메타성찰성(meta-reflexivity)과 인프라성찰성(infra-reflexivity)을 구분하였다. 메타성찰성이란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는 경우, 인프라성찰성은 스스로가 아닌 외부의 대상에 관하여 몰입하여 수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벡과 라투르가 성찰성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는 맥락은 다르다. 벡은 사회학적인 범주에서 라투르는 학문연구의 방법론의 범주에서 각기 성찰성 개념에 대해 논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그들의 개념적 구분들(반성과 성찰, 인프라성찰성과 메타성찰성)을 파악하면서 성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찰성이란 재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지시, 자기반성 (혹은 근대화의 근대화) 등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성찰은 외부세계를 재현하거나 그것을 이해하여 지식으로 삼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성찰에 대한 착안은 사회학적, 학문방법론적으로 다루어 볼만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결정적 요인이며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생각된다. 특히 메르텐은 성찰성의 재귀적 성격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르텐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찰을 설명하면서 이에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회적(sozial), 실질적(sachlich), 그리고 시간적(zeitlich) 성찰성이다. 사회적 성찰성이란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해서 의식하고 반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참여자 A가 B의 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참여자 A가 B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찰성, 즉 상대방에 대해서 재귀적인 고려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로 실질적 성찰성이란 메타언어를 말하는데, 언어적인 진술이 다른 어떠한 것을 지시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발생한 진술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로 시간적 성찰성이란 시간적으로 이후에 발생하게 될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일회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항상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메르텐은 선구조화(pre-structuring)이라고 하며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이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시간적 성찰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미래에 발생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작용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자체와 결부되어 있기에 이러한 관련성은

3) 물론 성찰적 근대화라는 저서의 필자들 중에서 기든스나 래쉬가 말하는 성찰성은 벡의 그것과 약간 다르다. 단순화시킨 설명이지만, 벡은 근대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자기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성찰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기든스와 래쉬는 의식적으로 근대화를 근대화시키는 작업이 성찰적이라고 하였다. 벡의 성찰성 개념은 재귀성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생각된다.

4) 한편 윤리학, 해석학, 언어학의 분야에서 성찰성에 대한 논의는 각각 김상준(2007), 양해림(2006), 조국현(2003)을 참고할 수 있다.



항상 재귀적일 수밖에 없다. 즉 메르텐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성찰성은 단순히 상대방(자신)이 당연히 잘 알 것이라고 믿고 그(내)가 산출한 의미를 나(상대방)에게 각인(투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이가 아는 것을 알고, 다른 이의 견해에 대해서 견해를 갖으며, 다른 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또한 그에 대해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한다(Merten, 1976, p.173).

루만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체계이론적 커뮤니케이션론도 또한 바로 이러한 성찰성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체계의 구성은 성찰성에 의존한다. 체계는 외부대상의 관찰을 위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체계는 자신이 다른 이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조율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호하기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다른 이에 태도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설정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Merten, 1976, p.173). **성찰성은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며 체계를 통하여 비로소 상대방과 연관된 기대의 조율과 태도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율과 설정은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메르텐이 성찰성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메커니즘으로 제안한 것은 실로 오래 전 일이다. 이후에 메르텐의 착안과 연장선상에서 루만의 체계이론이 발전되었고, 또한 많은 논자들이 그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다음에서 루만의 체계이론적 커뮤니케이션론을 비롯한 이론들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약간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성찰성 개념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화용론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합리성론’과 대립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이것으로써 체계이론적 커뮤니케이션론을 따르는 노선이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는지 파악해보겠다.

## 5. 화용론적 생활세계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언어의 패러독스는 언급한대로 화용론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즉 의미의 창출이나 교환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는 단순히 언어의 의미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주변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커뮤니케이션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앞서 다양한 형태의 기호를 동일한 상황 하에서 전달하여 대화상대자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이중구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언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두 대화참여자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의미를 누락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이해하여 패러독스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랜트는 퍼트넘(Putnam, 1997)의 설명을 인용하여, 이중구속의 패러독스는 맥락, 즉 콘텍스트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것을 화용론적 해결이라고 한다(Grant, 1997, p.106). 이 해결방식은 가능할 법하다. 왜냐하면 언어의 지시관계가 달라지거나 엇갈릴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인 활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인된다면 그 활용에 근거하여 언어의 의미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상대방이 나와 동일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화용론적 해결방안은 반드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전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콘텍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 참여자들이 그것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참여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는 결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여자 간에 공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설사 주관적이라고 할지라도 양자 간의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상호주관성 개념에 기초하여 커뮤니케이션 합리성론의 구성에 주력한 이론가는 하버마스일 것이다. 그는 ‘능력’(Kompetenz)을 갖춘 주체들이 ‘생활세계’(Lebenswelt)를 형성하면 그것이 상호주관성을 이루게 되며, 이것으로 화용론적 언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상호양해와 실행을 통해 매개되는 언어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춘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보는 형식실용론적 이해”<sup>5)</sup>가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이다(1981/1995, 313쪽). 또한 “소통적 실행들이, 다시 말해서 언어행위나 이와 대등한 비구어적 언표가 어떻게 행위 조합의 기능을 감당하고 상호작용의 건설에 기여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선상에서 형식실용론적으로 완성된 소통이론은 사회학적 행위이론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 소통적 행위는 상황적 맥락을 떠날 수 없는데, 상황적 맥락은 상호작용 참여자들이 살고 있는 생활세계의 단면을 묘사한다”(1981/1995, 316쪽). 하버마스는 상호주관성을 중시하여 의미교환과 상호작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는데, 사실 그에게 상호주관성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쌍방 간에 의미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탕 일뿐만 아니라, 주체가 합리적 이성을 보전하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매우 중대한 개념이다.

그런데 과연 상호주관성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확고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구성주의자들에게 상호주관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왜냐하면 구성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보면 현실이란 언어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식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지니는 개별적 의식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공유될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버마스와 구성주의자들 사이에 문제를 대하는 인식론(epistemology)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자들은 상호주관성의 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여 하버마스의 방식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는 의문스럽다. 하버마스의 상호주관성 개념에서 무엇인가가 설명되지 않고 전제되었다는 점에 대해 김성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하버마스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목적합리적인 개인행위들의 조정이다. [...] 제안된 유효성 요구의 상호이해는 상례로서 전제된다”(1996, 27쪽). 본 논문의 관심사인 커뮤니케이션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버마스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생하는 패러독스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풀어냈다고 볼 수 없고 “유효성 요구의 상호이해”의 상태에 의존하였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참여자들은 이미 합의를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한 합리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한다. 합리성에 대한 끝없는 요구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그는 ‘이상적 담화상황’(ideale Sprechsituation)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 주체가 존재하고 화용론적 언어활용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구성주의자들과 체계이론가들이 보기에는 해결이 아닌 포장이며 정당성과 이상을 앞세워 논리적인 난점들을 뛰어넘는 것에 불과하다. 본 연구자는 구성주의자들의 견해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커뮤니케이션 합리성론이 지니는 허점에 대한 비판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사회학적인 합목적성에 관한 논의와 커뮤니케이션 이론 일반에 관한 논의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하버마스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합리적 이성을 지속하는 방편으로,

5) 본고는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성에 관해서 1995년에 번역된 『소통행위 이론』을 인용한다. 본고에서는 Pragmatik을 화용론으로 표기하였는데 인용된 번역서에서는 그것을 실용론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으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자체에 대하여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sup>6)</sup> 그리하여 결국 하버마스에게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패러독스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 때문에 체계이론가와 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초대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하버마스에게 쟁점은 합의의 목적성과 필연성을 고려하느냐 혹은 배제하느냐의 문제이며 커뮤니케이션 일반론 자체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의의 목적성과 필연성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없는데, 결국 두 이론가들의 입장과 학문분야 내부에서의 위치를 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논리적인 문제를 덮어두는 일이 반드시 이론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하버마스의 인식론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계몽주의적이다. 이에 관해 라쉬와 윌프(Rasch & Wolfe)는 체계이론을 옹호하면서 단순 계몽주의적인 정치성이 “이성적 논거”와 “이론적 엄밀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용적 문제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계몽주의의 철학적이고 비판적인 제스처는 에토스로 그리고 정치적 책무, 혹은 윤리적 순수성의 개인적 전사로 축소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시는 결국 도덕적 설득과 연민과 동정의 유인을 위한 것으로서 이성적인 논거와 이론적인 엄밀함보다 앞서간다. 만약 실제로 그러하다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계몽주의 전통은 철학에 기반한 정치적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 문제해결과 제안을 위한 실용적 세트로 간주되어야만 한다”(Rasch & Wolfe, 2000, p.2).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독스 문제를 우회하는 것도 이러한 문맥에서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밝혔듯이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론은 합리성, 합의, 상호작용, 호혜 등과 같은 계몽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개념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회라고 표현한 부분, 즉 양자 간의 합의가 지니는 패러독스 현상에 대하여 심층적 고찰을 행하는 이가 루만이다. 루만은 하버마스가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는 생활세계의 상호주관성 개념을 ‘이중의 우연성’과 같은 패러독스 관계를 내세우면서 비판한다.<sup>7)</sup> 루만에게 커뮤니케이션이란 하버마스의 경우처럼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이미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나아가서 계몽주의적 혹은 인본주의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적 합의의 의도를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은 이러한 환경이 배제된 상태에서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게다가 그러한 선택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단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상호주관성이 구성이나 의미 있는 대화의 진행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6) 그랜트는 이에 대해 “대화주의(dialogism)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며 상호주관성은 일종의 외부적 목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Grant, 2007, p.131)라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출발하여 패러독스 문제에 대해 깊이 다루는 와츠라워(Watzlawick, 1967)를 생각하면 그것이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론의 관점과 상당히 대조적임을 실감할 수 있다.

7) 물론 하버마스도 이중의 우연성의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루만의 자기지시성 개념에 대하여서도 그것은 독일의 관념론 전통을 반복하는 것일뿐이라며 비판한다(Habermas, 1981). 정성훈은 이러한 문맥을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러한 상호비판은 두 학자의 사상적 대립에 있어 가장 첨예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존재론과 인본주의 전통을 벗어나는 의미론’과 ‘형이상학 이후의 사유’를 각각 그 사상적 발상으로 삼는 두 사람에게 ‘너는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라는 식의 비판이야말로 가장 큰 도박이기 때문이다”(정성훈, 2009, 243쪽). 정성훈은 하버마스와 루만 논쟁의 대립지점을 알기 쉽게 체계이론 대 상호주관성 이론, 소통이론 대 행위이론, 계몽적 비판 대 철학적 비판, 차이이론 대 동일성 논리로 요약하는데, 이러한 두 사상가의 논쟁점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점에서 상호주관성과 소통의 문제를 주목해야한다. 정성훈의 정리는 유명한 하버마스와 루만의 논쟁을 간추린 결과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러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Kjaer, 2006; Leydesdorff, 2000; 김덕영, 2003).

## 6. 성찰적 메커니즘의 작용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하버마스는 화용론적 언어 활용과 그것에 기초한 이상적 담화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독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인지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모두 체계로 귀결시키려는 체계이론가들에게 이상적 대화상황과 같은 아주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루만이 생물학과 같은 체계적인 논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였을 때, 그는 어떠한 상황이 더 중요하기에 그것을 특별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구성주의자인 마투라나(Maturana)가 생물학적 유기체 개념으로 인간의 인지활동을 설명하려 했던 것처럼, 루만은 그러한 착안으로 사회체계를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행하였다.

체계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전달이나 합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체계의 지속적 분화와 생산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을 정보, 전달, 이해의 세 가지 과정으로 기술하는데, 각각의 과정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원리상에서는 동일하다. 즉 선택에 의한 정보의 확정, 선택에 의한 전달의 확정, 그리고 선택에 의한 이해의 확정이 각기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된다. 그리고 세 가지 과정은 모두 독립적으로 발생하지만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성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선택을 위해서 관찰의 질서(Beobachtungsordnung)가 결정되고 그렇게 설정된 질서에서 관찰의 관찰, 즉 재귀적인 관찰이 가능해진다. 물론 항상 하나의 과정은 다음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진행, 진화하는데, 그것은 체계의 성립과 동시에 그것 자체를 관찰하는 체계가 생성되는 자생성(autopocesis)의 원리와 같다(Luhmann, 1984; 김성재, 1998). 따라서 체계의 생성은 성찰적이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관찰로부터 재귀적으로 그것과 연관된 체계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구분과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으로 체계를 만들었다가 곧 그것을 해체하고 다른 체계를 만드는 일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결정되려면, 바로 그 상태를 관찰하도록 하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체계의 구성을 통하여 정보, 전달, 이해와 같은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 성찰성은 이러한 과정의 연쇄를 가능하게 해주며, 개별적 단계에서 무엇인가가 결정되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준다. 결국 체계이론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역동적으로, 그리고 성찰적으로 규정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점이 하버마스의 경우보다 더욱 유리하게 작용한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정보선택, 전달선택, 이해선택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합목적성이나 정당성과 같은 명분과 관계없이 타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에서 선택이 문제가 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은 행위로 간주하기보다 행위와 의식의 과정 모두를 함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루만이 말하는 체계란 사실상 그것의 구분을 말한다). 그리고 셋째로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어떠한 목적달성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커뮤니케이션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전달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맥에서 크네어와 나세히는 이러한 지속적 생성의 특성이 지니는 이점을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행위와 인격으로 방향을 잡는 설명은 소통으로 일어나는 일의 자립성과

복잡성을 무시[한다]. 소통을 통지행위로 간주하자마자, 우리는 사회적인 것의 창발적 성격을 놓치게 된다”(Kneer & Nassehi, 2000/2008, 122쪽). 결국 루만의 이론은 이중의 우연성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 ‘설명’하려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설명의 시도에서 단순히 논리적인 난점을 극복하는 소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창발”의 성격도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본 논문이 취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우연성과 선택의 문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할수록, 개인적인 차원의 자기지시, 재귀성, 성찰 등 스스로와 관련된 사항들에 초점이 모아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찰의 단계를 설정하여 체계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계의 증식은 반드시 이전에 구성되었던 체계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 즉 메르텐이 설명한 대로 성찰성이 체계의 증식을 보장해주고 또한 그것이 분화될 수 있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귀성 없이는 체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체계의 진화를 이해할 수 없다.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으로 실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어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성찰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켜보도록 하겠다.

## 7. 성찰성 개념의 구성주의적 전개

한편 루만의 체계이론은 다른 구성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슈미트와 그랜트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고찰해보면서 이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성찰성의 의미가 어떻게 변형되며 또한 구체화되는지 알아보겠다. 슈미트도 루만의 체계이론적 관점을 취하지만 부분적으로 그의 이론을 비판한다. 주로 루만의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환원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 루만이 체계의 폐쇄성만이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점, 그리고 둘째, 주체에 의한 구성의 작동을 일반적인 체계작동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chmidt, 1994/1996, p.89). **첫 번째**는 다양성의 축소 문제이다. 즉 루만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들을 환경과의 구분 논리(System/Umwelt-Differenz)로 본다. 그 결과 선택의 문제만을 강조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은 체계구성의 기본적인 단위이기도 하며, 또 역시 커뮤니케이션도 체계구성으로서 가능하다는 설명을 한다. 즉 루만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체계를 구성하는 작동원리이기도 하고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체계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런데 슈미트는 이러한 포괄적인 설명을 비판한다. **두 번째** 문제는 주체의 문제이다. 즉 슈미트는 구성주의자로서 주체의 인지적 자율성을 매우 강조하는 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루만이 “사회체계가 관찰한다”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주체구성 and 체계작동을 구분하지 않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루만은 사실상 체계이론을 구상하면서 주체를 특화시키려는 철학적인 시도에 대해 반박하게 되는데, 슈미트는 이에 대해 전통적인 의미의 주체 의미를 절대화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성적 주체까지도 체계로 희석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루만과 슈미트 모두 의미는 전달되거나 지시되는 것이라는 사실주의적 입장을 거부하지만, 슈미트는 루만처럼 의미 있는 것은 단지 구분이라는 상대주의적 설명에 대해 입장을 달리 한다. 즉 슈미트에 의하면 의미는 집단지식이나 문화로부터 산출된다. 다만 사실주의자들의 경우와 달리 슈미트는 “지식이란 어느 곳에 주어졌 것으로서 저장된 무엇이 아니라, 사회적 규칙에 따라서 인지체

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생성되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주체의 의미생산에 관한 작동이 루만에게서는 단지 기계적 구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다. 즉 루만에게서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확인하며 제한하는 주체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며, 고로 루만이 전제하는 다원적인 의미출현의 자기운동성은 존재하지 않는다”(Schmidt, 1994/1996, 97쪽). 쉽게 말하여, 슈미트는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설명보다는 인간적인 점을 더 감안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이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절대적이고 근대적 주체개념과는 다르다. 이러한 문맥에서 그가 어떠한 부분에 이론적 고찰의 주안점을 두게 되었는지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론적 공백을 슈미트는 인지적 자율성 이론으로 메운다. 인지적 자율성 개념으로 루만이 인지의 문제와 체계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려는 시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성주의자로서 슈미트에게 인지와 의미의 문제를 루만처럼 자기지시적 체계와 연결지어 고찰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내면의 인지 사이를 조정하고 운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용에는 체계가 필요하고 그것도 자기자신의 인지를 조절하는 자기지시적 체계를 필요로 한다. 즉 “우리의 의식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신경계에서 이미 모든 것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경계 활동에 비하여 항상 너무 늦는다”(Schmidt, 1999, p.188). 인식은 결국 지각(知覺)보다도 지각(遲刻)하며, 이러한 시간의 차이가 바로 인지란 재귀적인 면모가 있음을 인식시켜준다. 그것이 바로 자기조직(self-organization)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어떠한가? 슈미트는 인지의 재귀적인 특성이 커뮤니케이션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전달이나 이해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대화의 패러독스를 유발시킨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참여자 각자의 인지과정을 자기지시적 체계로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각기 담화의 상황 자체를 파악하려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왜 소통하나?’, ‘무엇이 주제인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점에 대한 파악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어떠한 점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만 하고, 또한 어떠한 점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정해야만 한다. 즉 기대의 기대(Erwartungserwartung)과 가정의 가정(Unterstellung-sunterstellung)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구조이며 따라서 이러한 중복의 구조, 자기지시적인 구조를 성찰적 구조(reflexive Struktur)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가정이 엇갈리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불확실함을 점차로 개연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

사실 이러한 슈미트의 설명은 그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루만의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다만 슈미트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정을 가정하고 기대를 기대하기 위해 허구(Fiktion)의 구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성주의적 인지의 자율성에 근거한 구성적 주체관에서 비롯된다. 일면 허구의 작동은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생되는 체계의 작동과 엇비슷하여 루만의 견해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슈미트는 허구개념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는 체계가 각기 참여자들이 지니고 있는 인지조직적 체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허구라고 하면 주로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말하는 허구란 작용적 허구(operative fiction)을 말한다. 즉 이해와 표현의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으로 슈미트는 구성적 주체, 즉 인지적 자율성이 확보된 체계운영의 주체가 다른

체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 작용적 허구의 바탕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가 나타난다. 아무도 그가 실행한 기대의 기대 혹은 가정의 가정이 옳고 그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머릿속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상호작용이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이차적 과정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가정의 신뢰성에 대한 지표로 기능화한다. 나의 기대들과 가정들은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허구의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허구의 세계에서는 기대나 가정들이 옳은 것이고 그 세계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허구의 세계를 일반화시킨다”(Schmidt, 2001, p.17). 결국 슈미트는 허구라는 개념으로 성찰성의 작용을 한 걸음 더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루만의 경우에서처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정보, 전달, 이해의 단계들이 서로 재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에 고유한 허구의 구성작용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인지의 작용은 재귀적일뿐만 아니라 허구적이기도 한데 바로 그 점이 슈미트가 특별하게 생각한 성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허구개념을 통하여 인지적 자율성을 지닌 주체만이 활용할 수 있는 성찰적 구조형성의 가능성을 설명함으로써 주체의 개념을 제거하려고 했던 루만의 체계이론적 구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 8.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과 다공성

그랜트도 체계이론과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바라본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순히 복잡하다거나 모호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마디로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정의한다. 이중의 우연성에 의해 야기되는 복잡함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언어의 문제이며, 그랜트는 이렇게 언어의 모호성(language vagueness)에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강조한다(Grant, 2001). 본 연구의 서두에서 정리한 것에 따라 표현하자면, 그랜트는 여러 가지 패러독스들 가운데 특히 언어의 패러독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구성을 위하여 언어의 패러독스 문제에 매달린 그랜트는 이러한 이유에서 구성주의와 체계이론으로 눈을 돌렸다. 그렇지만 루만의 구상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즉 루만에 의하면 선택적 자기지시성은 체계의 안정을 도모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실현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랜트가 보기에는 이러한 자기지시성 또한 불확정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불안정성은 폐쇄된 그리고 자기지시적 의미론에 의해서 축소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자기지시적 의미론도 역시 불확실성에 종속되어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그들의 기능성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의미론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한다”(Grant, 2003, p.104).

그가 루만의 문제해결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체계와 환경이 구분되어 커뮤니케이션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착안, 즉 복잡성 축소에 관한 구상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루만은 자기지시적인 관찰만이 유일하게 복잡성을 축소해줄 수 있다고 하며, 이에 외부를 지시하지 않고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혼란을 극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미디어’(symbolisch generalisierte Medien) 개념에 공을 들였다(김성재, 1998, 94~10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트는 실제로 그러한 구성의 메커니즘을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즉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체계와 환경이 구분되어 체계가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그는 “체계 안정성을 너무 과장하였고 내제된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 하였다”(Grant, 2004, p.225). 루만은 상징일반 미디어, 즉 코드의 생성 및 활용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에서 코드들이 하나의 결정된 체계에서 단일하게 작동한다는 가정은 경험적으로 미루어볼 때 생각하기 어렵다. 그랜트에 따르면 이러한 코드작용의 선택과 체계와 환경의 구분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루만이 설명한대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체계와 환경사이의 구분은 우연적이지 않고 액체와 같다(liquid)” (Grant, 2003, p.226). 예를 들어 구분과 해체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생하여 체계와 환경 사이의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정보의 오락화, 탈전통화, 탈중심화, 글로벌화가 아닌 글로벌화 등) 이러한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체계의 혼란을 축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란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란과 분산의 가능성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체계의 안정된 형성을 위해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한 코드로서의 미디어 개념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하여 그랜트는 루만의 체계이론이 지니는 체계의 자생성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자(lattice)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그랜트는 다공성(poros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다공성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극도로 복잡적으로 작용하여, 심지어는 루만이 제시한 체계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즉 자기지시적 체계이론이 제안하는 복잡성의 제거와 체계의 안정화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랜트에 따르면 그것은 언어와 같은 코드(혹은 미디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할 수 없고 그것조차도 패러독스한 상태를 유발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공성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용어로서 환경에 있어서 개방된 혼성의 상태와 역동적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체계의 작용적 폐쇄성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러한 혼성의 예는 상호텍스트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적 담론과 공적 담론이 합류하는 지점이나 해킹, 감염, 잠재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것을 말한다”(Grant, 2003, p.104). 그랜트는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이중의 우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체계의 해체와 분산을 유도하는 특성을 부각시킨다. 이를 위해 의미가 반복될 수 없다는 점, 최소한 활용될 때에는 확실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루만이 말한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미디어의 개념도 의심한다.

## 9.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성찰성의 의미

지금까지 당위, 정당성, 합의의 이념 등의 규범적인 조건들 없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루만이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자기지시적 체계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독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한 이후, 슈미트와 그랜트가 루만의 이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체계이론을 받아들인 두 이론가에게서 공통적인 점은 이러한 심화의 과정에서 성찰성 개념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허구와 다공성 개념이 보다 세밀하게 이론화된 성찰성으로서 제시된다. 다음에서 그 개념들이 어떠한 문맥에서



성찰성의 의미를 구체화한 결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앞서 루만의 체계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그랜트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폭넓게 바라 보면 그가 비판과 이론적 고찰을 행하는 부분도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성찰성에 관한 부분이다. 즉 그는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성론에 반박하면서 나타나는 우연성은 보다 섬세한 성찰성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즉 우연성은 정보, 전달, 이해를 위한 선택의 갈림길에서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주체 내부에서도 이미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누가 무엇을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의 주인은 동일한 의식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누가 무엇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동일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고와 언어의 측면에서 우연성이 파생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신분열이나 언어장애와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각각의 분리된 생각과 언어는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연관성은 성찰적인 관계를 말한다. 즉 이러한 분리의 현상은 의식의 경우에 “알고 있는 자로서의 자아(the self as knower(the ‘I’))와 알려지는 자로서(the self as known(the ‘Me’))의 자아 사이의 구분”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을 그랜트는 대화적 자아(dialogical self)라고 한다. 그리고 언어의 경우에도 분리는 항상 발생하는데, 그것은 마치 한편의 소설에서 전지적 서술자가 여러 명 존재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그랜트는 그것을 다성성(multivoicedness)이라고 한다(Grant, 2007, pp.129~136).<sup>8)</sup> 그런데 두 가지의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재귀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언어와 의식의 복수성에서 비롯된 “우연성의 집합을 의식한다는 것은 더욱 예민한 자기성찰성의 지각을 의미”한다(Grant, 2007, p.43).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차원인 “인지의 단계”(cognitive level)에서도 우연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우연성의 집합”을 그랜트는 다공성이라고 표기하였다(Grant, 2003, p.115). 그렇게 본다면 그랜트의 다공성 개념은 성찰성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더욱 확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찰성이 부각되는 모습은 슈미트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 즉 이해는 루만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의 3단계 모델에서 하나의 단계로 규정되며, 또한 이해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다른 단계들을 성찰적으로 의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 슈미트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루만으로부터 받아들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해의 성찰성은 슈미트가 보기에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직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이해의 모든 문제를 루만처럼 체계의 순환성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억에 대한 모델(예를 들어 Squire, 1986; Assmann, 1999), 지식에 대한 모듈성 테제(Viehweger, 1987)와 같은 이론들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의 작업에서 결국 이해를 “실행가능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만 그 고유수치에 도달하는 인지적으로 자율적인 재귀적 과정”(Schmidt, 1994/1996, 155~156쪽)으로 규정하는 설명을 받아들인다. 즉 객관적인 의미이해와 주관적인 수용가능성의 판단을 접목하는 구성

8) 물론 이 개념들도 예초에 다른 학문분야에서 도입된 것인 만큼 그랜트의 개념은 아니다. 그는 주로 허먼(Herman, 2001)과 리넬(Linell, 1988)을 인용한다. 그랜트는 주체와 언어의 문제를 대하면서 프랑스의 후기구조주의자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언어의 다성성과 의식의 다중성 문제는 후기구조주의자들에게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데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다성성을 설명하면서 그는 바흐친(Bakhtin)을 인용하는데, 그랜트는 이에 대해 다중적 서술자에 의한 언어의 분리와 메타언어에 의한 언어의 분리, 두 가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즉 다성성에 관한 보다 세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주의적인 입장으로 커뮤니케이션론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성은 기억이라는 의식활동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외부세계의 대상을 그대로 우리의 의식에 투영하는 것이 지식형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투영이 아닌 구성이 문제가 된다면, 무엇인가 다른 의식활동이 존재해야 하는 데 그것이 기억이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도 선행된 커뮤니케이션의 단계가 다음 단계로 이행되려면 구성적 의식, 즉 기억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성찰성은 기억 이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억이나 지식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슈미트의 입장이다. 다만 그것은 루만처럼 모든 체계의 작동을 동일하게 보려하지 않고, 그와는 다르게 인지적 자율성과 체계의 작동을 구분하여 고찰하려는 슈미트의 의도에 기인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이러한 슈미트의 제안은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비판하고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이론이나 인지이론과 같은 인접학문의 이해를 가져오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모든 가능성들을 흡수해야 한다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자율적인 재귀적 과정, 즉 성찰적인 주체에 관한 설명들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루만처럼 단순히 선행되는 체계를 재귀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감성적 느낌, 자기 고유의 이야기와 지평, 인지체계의 자율적 조직과 같은 경우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찰성 범주에 포함시킨다. 슈미트는 애초에 루만이 체계작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특히 참여자의 주체적 인식활동과 체계의 작용을 동일시하려는 구상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그는 체계의 재귀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일반의 경우와 의식체계의 경우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의식과 관련된 체계성이 지니는 특수한 점을 구성주의적으로 보완하려 하였다. 허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 생산된다. 다시 말해서 허구는 학제적 연구를 위하여 제시된 일종의 방법론적 개념이다. 왜냐하면 슈미트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텍스트 이론과 기억이론 등의 인문학적 이론들과 연계하여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Schmidt, 2001, pp.15~17).

## 10. 결 론

인간은 원래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만 다른 개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개체와 관계 맺기 위해, 즉 인간이 사회적으로 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것을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패러독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다른 관점이 아닌 커뮤니케이션론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이러한 패러독스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상황의 구성을 기본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러독스의 문제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반면에 루만의 체계이론은 이상적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패러독스에 대한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메르텐의 착상대로 자기지시적 체계, 자생적 체계의 진화와 같은 성찰성에 기반한 모델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루만이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 합리성 모델을 비판하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델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즉 화용론적 언어관과 합리성으로 포장된 대화모델을 비판하기 위해 제안된 체계이론적 착상은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루만의 모델은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관찰을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체계를 안정시켜주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며, 오히려 체계구성을 교란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의 설명에 취약하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그랜트는 다공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커뮤니케이션이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슈미트는 인지적 자율성 개념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의미구성이 허구를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체계의 일반화를 피하는 루만을 비판한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두 이론가의 입장은 패러독스 문제를 우회하는 하버마스에 비판적이었던 루만과 같은 노선에 있다. 그 때문에 슈미트와 그랜트는 루만의 모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점을 보다 세밀하게 다루고 보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허구 개념과 다공성 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두 이론가는 그들의 관점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정당화하려한다. 즉 그들은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 문화 현상을 설명하려고 준비하는 듯하다. 슈미트는 뉴미디어 현상에서 나타나는 가상성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성찰적 메커니즘을 지원해주는 허구라고 본다. 그랜트는 최근의 여러 사회적 경향이 복잡성을 억제하는 폐쇄적 체계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루만의 체계이론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도 루만이 감안하지 않은 새로운 미디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러한 이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특히 그랜트의 견해가 다소 루만의 착안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루만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애초에 생물학적인 자생성 개념으로 사회학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도에서 코드의 스키마를 작성하였고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미디어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것으로 파슨스가 제시한 AGIL-도식의 단순성과 기능주의적 설명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체계의 설명이 파슨스에게서는 너무나 구조주의적이었고 변화의 가능성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루만의 코드들은 파슨스의 체계이론에서 발전된 모습을 띄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코드의 도식과 구분들이 이 도식에서 멈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즉 자생성 개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루만은 체계의 안정성 보다는 개방성을 지향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랜트가 파악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체계의 안정성만을 위해 작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루만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미디어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실 미디어는 형식과 우연적인 관계에 놓여있다고 한다. 즉 미디어는 그랜트가 본 것처럼 (루만이 도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커니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기능을 한다. 즉 메커니즘의 작용은 결국 미디어를 형식으로, 형식을 미디어로 뒤바꾸게 하는 움직임을 불러일으킨다. 즉 이미 충분히 불확실하다. 다만 그랜트의 설명에서 체계이론이 지니는 안정성보다는 불안정성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또한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가능성이 주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의 이해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간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볼 수는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은 논리적이지 않은 어떠한 것도 전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근거하여 어떠한 이상적인 경우를 설정할 수도 없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려면, 누군가의 관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가 의도하는 효과가 적절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관찰의 결과가 다른 이에게 언어를 통하여 올바르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도 당연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은 경험적으로 수긍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패러독스를 유발시킨다.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론은 계몽주의적 전통에서 이러한 전제들을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화용론에 근거하여 패러독스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체계이론가들과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순으로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체계 개념으로(루만) 혹은 인지적 자율성 개념으로(슈미트) 커뮤니케이션의 성찰적 특성을 보다 세밀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사회적 함의라는 대의명분을 포기하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의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단지 그러한 흐름이 주로 성찰성이라는 의식적 활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메타분석적인 논평에 그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사회적 맥락의 커뮤니케이션과 개인적 맥락의 의식 활동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으며, 그러한 시도가 어떻게 촉발되었고 또한 어떠한 이론적 개념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는 반드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경우에 비로소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가지 정도로 그 과제를 요약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지, 기억, 텍스트 이론 등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되어야 하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이러한 수용의 가능성은 그것이 실제분석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의문에 대해 답변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슈미트나 그랜트가 생략하고 있는 적용분석, 특히 미디어 현상에 대한 실제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김상준 (2007). 성찰성과 윤리. 『사회와이론』, 10집, 33~78.
- 김성벽 (2004). 미디어 연구의 생태론적 경향과 의의.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165~184.
- 김성재 (1996). 이중의 우연성과 커뮤니케이션: 파슨스, 미드, 설, 하버마스 그리고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13권, 6~36.
- 김성재 (1998). 『체계이론과 커뮤니케이션: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해림 (2006). 해석학과 사회체계: 딜타이와 루만의 이해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97집, 143~169.
- 오창우 (2003). 새로운 언론개념 조각화를 위한 체계이론적 고찰. 『사회과학논총』, 22권 1호, 251~267.
- 오창우 (2004). 언론체계와 PR체계간의 상호의존과 상호침투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23권 1호, 527~542.
- 오창호 (2008). 맥루한과 포스트만: 생태주의 매체철학.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199~225.
- 이진복 (2006). 성찰적 근대화의 논의구도. 『시민사회와 NGO』, 4권 1호, 177~204.
- 정성훈 (2009). 루만과 하버마스의 대립구도에 관한 하나의 이해. 『진보평론』, 40권, 237~259면.
- 조국현 (2003). 메타 현상과 언어 사용의 성찰성에 관하여. 『독어교육』, 27권, 161~184.
- 최경진 (2001). ‘미디어’ 저널리즘의 자기관련성: 독일 신문의 ‘미디어 자기보도’를 통한 사례연구. 『언론과사회』, 30권, 98~127.

- Assmann, A. (1999).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Beck. 변학수 · 채연숙 역 (2003).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경북대학교출판부.
- Barthes, R. (1957). *Mythologies*. Paris: Éd. du Seuil.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2002). 『현대의 신화』. 서울: 동문선.
- Bateson, G. (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 U., Giddens, A. & Lash, S.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Oxford: Blackwell. 임현진 · 정일준 역 (1998). 『성찰적 근대화』. 서울: 한울.
- Derrida, J. (1988). Signature, event, context. In *Limited Inc.* (pp. 1~23).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Grant, C. B. (2001). Vagueness, porous communication, fictions of society. *Critical Studies*, 16, 43~58.
- Grant, C. B. (2003). Destabilizing social communication theory. *Theory, Culture & Society*, 20(6), 95~119.
- Grant, C. B. (2004). Uncertain communications: Uncertain social systems. *Soziale Systeme*, 10(2): 217~232.
- Grant, C. B. (2007). *Uncertainty and communication: New theoretical investigations*. New York: Palgrave.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1*. Frankfurt/M: Suhrkamp. 서규환 외 역 (1995). 『소통행위 이론. I. 행위합리성과 사회적 합리화』. 서울: 의암.
- Habermas, J. (1989).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Zwölf Vorlesungen*. Frankfurt/M: Suhrkamp. 이진우 역 (1994).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 Herman, H. J. M. (2001). The dialogical self: Toward a theory of personal and cultural positioning. *Culture & Psychology*, 3(7), 243~281.
- Kirchmann, K. (1997). Zwischen Selbstreflexivität und Selbstreferentialität: Zur Ästhetik des Selbstbezüglichen als filmischer Modernität. In Karpf, Ernst (Ed.). *Im Spiegelkabinett der Illusion: Filme über sich selbst* (pp. 67~86). Marburg: Schüren.
- Kneer, G., & Nassehi, A. (2000). *Niklas Luhmanns Theorie sozialer Systeme*. München: Fink. 정성훈 역 (2008).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서울: 갈무리.
- Krippendorff, K. (1989/90). Eine häretische Kommunikation über Kommunikation über Kommunikation über Realität. *Delfin*, 7(1), 52~67.
- Lasswell, H. D. (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L. Bryson (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A series of addresses* (pp. 37~51). New York: Institute for Religious and Social Studies.
- Latour, B. (1988). The politics of explanation: An alternative. In S. Woolgar (Ed.), *Knowledge and reflexivity*. (pp. 156~179). London: Sage.
- Lawson, H. (1985). *Reflexivity: The postmodern predicament*. London: Hutchinson.
- Linell, P. (1998). *Approaching dialogue: Talk, interaction and context in dialogical perspectives*. Amsterdam: Benjamins.
- Luhmann, N. (1984).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M: Suhrkamp.
- Luhmann, N. (1998).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M: Suhrkamp.
- Merten, K. (1976). Reflexivität als Grundbegriff der Kommunikationsforschung. *Publizistik*, 21, 171~179.
- Pörksen, B. (2001). Ist der Journalismus autopoietisch? Thesen und Anregungen zur Debatte über die Art der Steuerung und Eigengesetzlichkeit eines sozialen Systems. *Communicatio Socialis*, 34, 59~65.
- Putnam, H. (1997). *Mind, language and reality: Philosophical papers,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sch, W., & Wolfe, C. (2000). *Observing complexity: System theory and postmodern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chmidt, S. J. (1994). *Kognitive Autonomie und soziale Orientierung: Konstruktivistische Bemerkungen zum Zusammenhang von Kognition, Kommunikation, Medien und Kultur*. Frankfurt/M: Suhrkamp. 박여성 역 (1996). 『미디어인식론』.

- 서울: 까치.
- Schmidt, S. J. (1999). Medien-Kultur-Wissenschaft. In C. Pias (Ed.), *Medien: Dreizehn Vorträge zur Medienkultur* (pp.183~198). Weimar: Verlag und Datenbank für Geisteswissenschaft.
- Schmidt, S. J. (2001). Media societies: Fiction machines. In C. B. Grant & D. McLaughlin (Eds.), *Language-Meaning-Social Construction: Interdisciplinary Studies* (pp. 11~25). Amsterdam & New York: Rodopi.
- Schmidt, S. J. (Ed.) (2004). *Handbuch Werbung*. Münster: LIT.
- Shannon, C. E., & Weaver, W. (1963).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quire, L. R. (1986). Mechanism of memory. *Science*, 232, 1612~1916.
- Stam, R. (1992). *Reflexivity in film and literature: From Don Quixote to Jean-Luc Godar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오세필 · 구종상 역 (1998). 『자기반영의 영화와 문학』. 서울: 한나래.
- Viehweg, D. (1987). Grundpositionen dynamischer Textmodelle. In W. Fleischer (Ed.). *Textlinguistik und Stilistik* (pp. 1~17). Berlin: Akad. der Wiss.
- Watzlawick, P., Bavelas J. B., & Jackson, D. D. (1967).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 London: W.W.Norton & Company.
- Westley, B. H., & MacLean, M. S. (2006). A conceptual model for communication research (1957). In P. Copley (Ed.). *Communication theories* (pp. 154~163). New York: Routledge.

(투고일자: 2011. 9. 1, 수정일자: 2012. 4. 28, 게재확정일자: 2012. 5. 2)

ABSTRACT

## Reflexion for Communication: A System Theory Perspective

Moo-Kyu Kim\*

This paper seeks to deal with the point that in order to perform meaningful communication, a conscious act of reflexion must be involved. In other words, performance of communication inevitably requires self-reflexion. It is known that rationality and dialogism function as necessary preconditions and as goals of communication. But these concepts are very ambiguous because the communicational paradox is not considered. The interaction model could be thought to solve the paradox problems, but such solution can ultimately be seen as a result of ignoring the point that personal reflexion is necessary or covering up the logical problem by depending on concepts such as ‘legitimation’ or ‘ideal discourse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views that the theory of communication based on Luhmann’s system theory and constructivism has a more meticulous logics, and considers that the concept of reflexion specifically supplements the interaction model also by examining Schmidt’s concept of fiction and Grant’s concept of porous communication.

Keywords: communication, system theory, constructivism, reflexivity, cognitive autonomy, fiction, porosity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